



팔에 골절상을 입어 깁스를 한 최수종(오른쪽)과 아내 하희라. 사진출처 | 하희라 인스타그램

### 골절상 최수종 예능 투혼에 아내 하희라와 팬들도 응원

배우 최수종이 다발성 골절의 부상을 입었지만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또 몸을 다쳐 아내 하희라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SNS를 통해 여전히 '사랑꾼'임을 드러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최수종은 12일 지방 사회인 축구팀과 벌인 친선 축구 경기 도중 오른팔이 부러지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오른팔에 철심을 박는 등 응급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그는 전치 10주 판정에 따라 당분간 통원치료를 하게 됐다.

최수종은 자신의 부상과 건강을 걱정할 하희라에게 애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빨리 회복해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며 팬들에게 안부를 전한 뒤 "그리고 희라씨... 다쳐서 이렇게 수술까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고 말했다. 뒤이어 하희라의 유튜브 채널 '하희라이트' 영상에서 아내와 함께 꽃밭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연예계 대표적인 '인교부부'의 면모를 드러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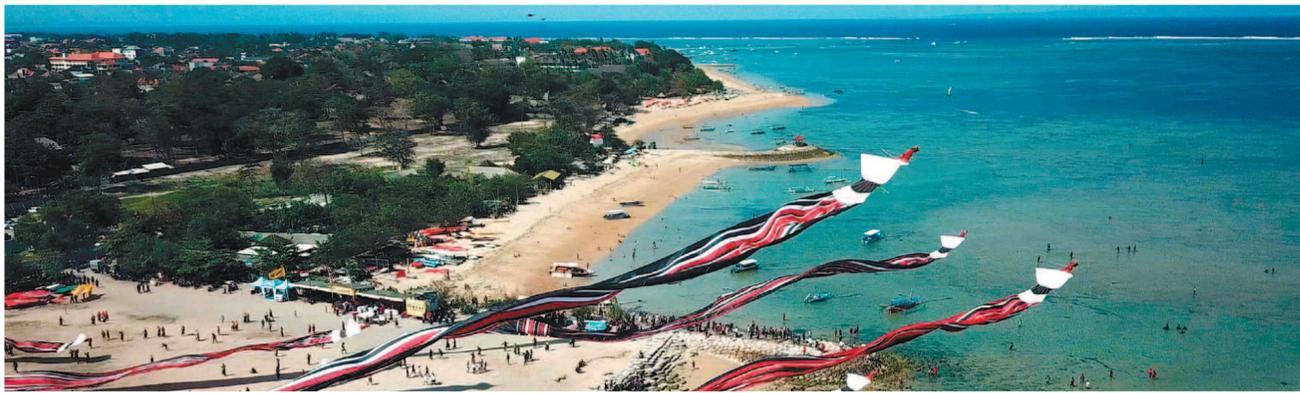
이와 함께 최수종은 하희라와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의 최근 녹화에도 참여했다. 깁스를 한 채 녹화를 마친 그는 치료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해 팬들을 응원을 받았다.

하희라도 24일 SNS에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만큼만 다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하희라는 깁스한 모습의 최수종과 소파에 나란히 앉은 사진을 올리며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며 팬들에게 화답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채널A, 2부작 프라임 다큐 '지구는 엄마다' 공개



26일과 7월3일 방영하는 채널A 창사 10주년 프라임 다큐멘터리 '지구는 엄마다'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풍경을 화면에 섬세하게 담아낸다. 사진은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채널A

## 발리 전통의식 '네페' 세계 첫 조명

〈힌두교의 달력 속 1월1일〉

새해 첫날 모든 활동 멈추고 침묵 단 하루라도 지구 쉬게끔 배려해 4년간 총 12개월 걸쳐 현장 촬영 환상적 풍광·힌두 전통음악은 덤 26일·7월3일 오후 9시50분 방영



채널A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프라임 다큐멘터리 '지구는 엄마다'를 선보인다. 26일과 7월3일 밤 9시50분에 방영하는 2부작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민들이 새해 첫 날을 기념하는 의식 '네페'(Nyepi)를 세계 최초로 조명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하루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침묵하면서 지구에 '휴식'을 주는 의식과 이를 펼치는 발리 주민들을 통해 지구와 인간의 공존에 관해 이야기한다.

#### ● '침묵의 날, 네페'

발리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네페'는 85%가량의 주민들이 믿는 힌두교의 달력 '사카'(Saka) 속 1월1일을 가리킨다. 이날 하루 동안 주민들은 불을 켜지 않고, 음식을 하며 집밖에 나가지 않는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제외하고 덴파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 '지구는 엄마다' 시사회에 참석한 윤정화 채널A 편성전략본부장(왼쪽)과 연출자 김해영 감독. 사진제공 | 채널A

사르 공항 등 모든 기관과 가게들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대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례 행사인 '멜라스티'를 비롯한 각종 관련 행사가 섬 곳곳에서 열린다. "이부쿠'(Ibuku·산스크리트어로 어머니 혹은 지구)를 1년 중 단 하루라도 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진 '어스 아워'(Earth Hour·매년 3월27일 1시간 동안 전기를 켜지 않는 캠페인)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지만, 정작 '네페'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네페'의 모든 것을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현지의 자연과 30여 명의 주민·전문가 인터뷰, 역사와 전통을 담은 발리 힌두 전통음악 등을 통해 다채롭게 담아낸다. 때 묻지 않은 발리의 풍광도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배



우 문숙이 내레이션을 맡아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24일 서울시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연출자 김해영 감독은 "우연히 방문한 발리에서 '네페'를 알게 됐고, 이렇게 좋은 아이টে임을 다른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 곧바로 제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앞서 2011년 채널A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하얀목시록 그린란드' 3부작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지구와 자연까지 관통하는 연결고리인 '네페'를 파고들기 위해 4년 동안 매년 3개월씩 총 12개월을 발리에서 보냈다"면서 "덕분에 흑지에 설량가루를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발리의 경관 등을 담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다큐"

특히 '네페'에 담긴 평화와 조화의 메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삭막해진 현대사회에 더욱 큰 의미를 전한다. 김 감독은 "발리 주민들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그에 대해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에 담긴 영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를 편성한 윤정화 채널A 편성전략본부장은 "채널A가 무탈하게 창사 10주년을 맞게 도와준 시청자와 모든 분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지구에 무해한 존재로 남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했고, 다큐멘터리가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발리의 가장 고요한 날이자 가장 중요한 전통문화인 '네페'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반갑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화면으로나마 전한 발리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여줄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MSG워너비 출격...여름 음원시장 정복할까

김정민·KCM 등 8명의 멤버로 구성된 유튜버서 벌써 2700만뷰 화력 뿜내

드디어 발라드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뜬다.

가수 김정민·KCM·사이먼 도미닉·박재정·원슈타인과 배우 이동휘·이상이 26일 음원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로, 3월27일부터 관련 특집을 펼쳐온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들의 데뷔 음원은 유닛 활동으로 나눠 2곡이다. 지식진·KCM·원슈타인·박재정이 몽친 M.O.M은 '바라만 본다'를 부르고, 김정민·사이먼 도미닉·이동휘·이상이 호흡을 맞추는 정성동기는 '나를 아는 사람'을 내놓는다. 또 7월3일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을 시작으로 각종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이들의 노래는 발라드 장르에서 손꼽히



발라드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

는 작곡·작사가의 손에서 탄생했다. '바라만 본다'는 SG워너비의 '타일리스',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등을 히트시킨 박근태 작곡가와 애즈원 '천만여요', 이수영의 '라라라' 등의 노랫말을 쓴 강은경 작사가가 만들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브라운

아이드소울의 멤버 나얼과 영준이 각각 작곡, 작사했다. 특히 나얼은 19일 '놀면 뭐하니?'를 통해 20년 만에 안방극장 시청자를 만나 화제를 모았다.

최근 브레이크업, 트와이스 등 아이돌 그룹이 여름 시즌송을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음원차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호기심을 모은다. 그룹은 이미 유튜브 등에서 관련 영상으로 총 2700여만 조회수(클립VOD 유통회사 스마트미디어랩 집계)를 얻는 등 뜨거운 '화력'을 자랑했다. 10%(대일스코리아) 시청률을 유지하는 '놀면 뭐하니?'의 화제성도 이들의 인기에 힘을 보탠다.

유지혜 기자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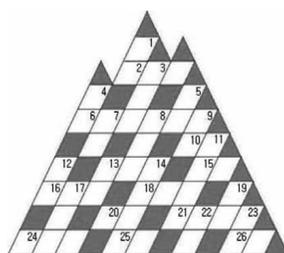
#### ■ 스도쿠문제

		9		5	8			
	7		4				5	
			9	1	8			7
	1			2	5			
8		5	1		4	7		3
		3		5			8	
5			2	4	9			
	8				1		4	
		4	6			9		

#### ■ 스도쿠정답

9	1	6	7	8	9	4	5	2
2	7	9	1	5	2	8	6	3
8	2	5	6	7	2	1	9	4
1	8	2	9	4	6	3	7	5
6	9	7	4	6	1	5	2	8
4	6	5	8	2	9	1	7	3
7	5	8	2	1	7	6	3	9
3	4	8	9	7	6	2	5	1
5	2	1	6	3	8	9	4	7
8	2	6	9	7	4	1	5	3
9	7	5	6	2	1	7	8	9
1	8	7	4	6	9	2	3	5
6	9	2	8	6	1	7	4	3
3	4	1	2	9	7	8	5	6
6	8	4	1	9	7	5	2	3
2	1	2	9	8	4	6	3	5

#### ■ 낱말문제



#### ■ 가로열쇠

02. 지진 등으로 산 중턱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 06. 되지 못한 잡살쟁이 사람들. 10. 분하거나 노여운 마음. 13.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15. 무르개 풀린 진흙이나 개흙이 핀 곳. 16. 비·이슬·눈·서리 등을 맞지 않도록 지붕을 해 덮은 차량. 18. 털이 거무스름한 말. 20. 때를 씻어 내는 데 쓰는 물건. 21.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는 뜻. 24. 절기가 바뀌는 시기. 25. 설에 새로 차려입거나 옷. 26. 땅속 가스 따위가 지각을 통하여 지표로 분출하는 지점.

#### ■ 세로열쇠

01. 광물을 캐는 곳. 03. 살갗에 낱알만 하게 돋는 균살. 04. 특수한 집단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네끼리만 쓰는 말. 05. 소를 잡아서 받은 피. 07.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협력하기 위하여 이룬 모임. 08. 남의 수염을 깎아 다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면 다음 삼각형을 이 어 놓으면 산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